

IV. 신앙 자유의 여명기

1. 여명기의 순교자들

1873년 흥선대원군이 퇴위하고 고종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천주교 박해는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그즈음 중국에서 조선 재입국을 기다리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배를 타고 건너온 조선 교우들을 만난 바 있다. 이어 1876년에 이르러 조선이 일본과 조일수호조규²²를 맺자 선교사들은 용기를 얻어 그해 5월 조선에 밀입국하는데 성공했다. 병인박해 발생 이후 10년 만에 선교사들이 다시 입국하면서 조선 교회는 재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논산지역의 신앙공동체는 오랜 박해로 신앙공동체가 대부분 와해되었으나 명맥을 계속 유지한 곳이 있었다. 산악 깊은 곳에 자리한 벌곡면 일대의 공동체가 특히 그러하였다. 벌곡지역의 교우들은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났다가 되돌아오거나 같은 지역의 멀지 않은 곳으로 피신하여 자리를 잡아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이런 가운데 간헐적 박해는 계속되어 많은 교우들이 순교하거나 옥살이 후에 풀려났다.

1) 김 사도 요한

연산 사람 김 사도 요한은 1866년 순교한 김영삼의 동생이다. 두 형제는 진산 가세별로 이사하여 살던 중 병인박해를 맞이하였다. 형 김영삼이 체포되어 전주에서 순교하자 김 사도 요한은 잠시 피신했다가 가세별로 되돌아왔다.

11년이 지난 1877년 다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피하라고 권하였으나

김 사도 요한은 피신하지 않았고 서울에서 파견된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네 천주학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내 과연 천주 성교를 봉행하노라.”라고 대답하고 서울로 압송되었다. 석 달 동안 갇혀 있었을 때, 상부에서 감옥에 있는 신자들을 굶겨 죽이라고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김 사도 요한은 굶어서 순교하였는데 그때 나이는 36세였다.

2) 성 베드로

성 베드로는 연산 배티(충남 논산시 별곡면 검천리) 사람으로 박 알렉시오 형제와 같은 마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1878년 뜻밖의 박해를 만났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논산과 고산 일대의 산골 교우촌에 살고 있다는 정보가 중앙정부에 알려졌기 때문인 듯하다. 이에 서울에서 파견된 포교들에게 성 베드로와 박 씨 형제들이 2월 30일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성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하였는데 그때 나이 38세였다.

성 베드로가 잡혀가는 장면은 박 알렉시오의 아내가 목격하여 후세에 전하였다. 성 베드로의 아들 성 아우구스티노는 전해 들은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박해가 끝난 후 증언함으로써 교회 순교록에 기록되었다. 증언할 당시 성 아우구스티노는 별곡이 아닌 고산 석장리(전북 완주군 경천면 용북리 구수동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3) 박 알렉시오와 형제들

박 알렉시오는 그의 형제 이냐시오, 안드레아, 마르코와 함께 ‘연산 배티’에서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파견된 포교 최우돌(최우돌)이 20명의 포졸을 거느리고 1878년 2월 30일 배티로 와서 박씨 형제들과 성 베드로를 함께 체포하였다. 최우돌(최우돌)은 프랑스 선교사 드게트(Deguette, Victor Marie)(1848~1889, 한국명:최동진(崔東鎭)²³)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대라며 그들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였다. 이때 박 알렉시오는 밀고하지 않기 위해 혀를 끊으려고까지 하다가 제지를 당하였다.

—
마을 안내석



—
마을 풍경



배교하면 풀어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박 씨 형제들은 천주 십계를 외고, 기도문을 외우며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였다. 형제들이 서로 권면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서울로 끌려갈 때는 마침 사순시기였다. 끌려가면서도 그들이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키자 포졸들이 더욱 심하게 능욕하였다. 서울에 도착하여 무수한 형벌을 받자 3형제는 배교하여 풀려나고 박 알렉시오만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들은 옥중에서 부활절을 맞았다. 박 알렉시오는 배교하고 떠나는 형제들에게 대송(代誦)으로라도 착실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였다. 6개월이 지나 박 알렉시오는 옥중에서 순교하였는데 당시 나이 36세였다.

함께 서울로 끌려갔다가 배교하고 풀려난 동생 박 안드레아가 박해가 끝난 후 형 알렉시오의 순교 사실을 증언하여 순교록에 기록되었다. 그때 안드레아는 ‘진뒤강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 박 알렉시오의 아들 박 요한도 아버지의 순교를 증언하였는데, 그는 ‘고산 석장리’에 살고 있었다.

4) 성경순, 박공엽, 박공좌, 박공칠, 박순옥

1878년 서울로 잡혀간 5명의 연산 교우들이 그해 3월 우포도청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모두 ‘연산’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연산 배티’에서 체포되어 순교한 성베드로, 박 알렉시오와 같은 마을 교우들이었던 듯하다. 지역과 성씨가 같고, 그들이 서울에서 문초를 받은 날짜가 3월 8일이므로 연산에서 체포된 시기를 2월 말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씨 성을 가진 4명의 교우들은 한 집안사람들로 보인다. 또,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중 박공엽, 박공좌, 박공칠은 위 3)항의 순교자 박 알렉시오의 형제들로 추측된다.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20번의 기록에 의하면 박 씨 형제들은 나이 순서로 이나시오, 알렉시오, 마르코, 안드레아이다. 따라서 배교하고 풀려난 3명 중 박공좌(44세)가 이나시오이고, 박공칠(34세)이 마르코, 박공엽(32세)이 안드레아로 판단된다. 이들과 여동생 박순옥(24세), 그리고 성경순은 배교하고 풀려났다.

『우포도청등록』 1878년 3월 8일(양 1878년 3월 29일)

- 成敬純(39세, 베드로):연산인. 농업. 배교
- 朴公燁(32세):연산인. 농업. 배교
- 朴公左(44세):연산인. 농업. 박공엽의 망형. 배교
- 朴公七(34세):연산인. 농업. 배교
- 朴純玉(24세):연산인. 농업. 박공좌의 여동생. 배교

5) 장정선

세례명이 알려지지 않은 장정선은 본래 진산 사람으로 언제부터인가 연산 동면 오리울²⁴로 이사하여 살았다. 1880년 서울에서 파견된 포교에게 체포되어 포도청에서 순교하였으니, 당시 나이 40세였다.

장정선이 체포되는 장면은 같은 마을에 사는 김성오가 목격하였고,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른 교우가 장정선의 순교를 증언하였다. 1880년 김성오는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으나 더 이상 고향에 살지 못하였다. 그가 정착한 마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울에서 북쪽으로 82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만 전해진다.

2. 연도 미상의 순교자들

박해기 많은 교우들이 수없이 처형당했고, 이들 중에는 언제 순교했는지 알 수 없다. 박해기 치명자들을 기록한 『병인치명사적』이나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순교일을 알 수 없는 교우 2명을 소개한다.

1) 김춘삼의 중형 仲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인물은 서울에서 순교한 김춘삼의 둘째 형이다. 그는 연산 논골(충남 논산시 별곡면 어곡리의 느락골로 추정)에서 살 때 공주 포교에게 체포되었고, 30여 세의 나이에 교수형으로 공주에서 순교하였다.

2) 박공악

박공악은 연산 오작실(충남 논산시 별곡면 검천리)에서 살다가 서울 포교들에게 잡혔으며, 그곳에서 30여 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관변 측 자료인 『우포도청등록』 나오는 박공악(朴公岳)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또한 거주지와 항렬 등을 보았을 때 1878년에 서울로 잡혀간 박공엽, 박공좌, 박공철, 박순옥과 친척 혹은 형제 사이일 가능성이 보인다.

3. 순교의 증언자들

기나긴 병인박해와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된 여파로 교우들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거나 잠시 피난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곤 하였다. 그중에는 체포되어 형벌을 받던 중에 배교하고 풀려난 이들도 있었다. 논산지역으로 피난해온 교우들 역시 그러하였다. 북쪽 경기도에서 남쪽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우들이 강경, 은진 등으로 이주해왔다. 그들이 정착한 지역을 보면 금강 변의 오지이거나 가야곡과 같은 깊은 산골이었다.

사방을 떠돌다 정착한 교우들은 박해가 끝나갈 무렵인 1876~1899년 사이 교회에서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조사할 때 증인으로 나섰다. 기록에 남아 있는 그들은 ‘은진 강경’, ‘은진 곶밭’, ‘은진 쇠목’에서 살고 있었다. 조선 시대에 강경은 은진현의 관할이었으므로 모두 은진지역으로 이주한 셈이다. 특히 내포지역 출신이 많았는데 그들이 남긴 증언들을 살펴본다.

1) 강경의 증인들

① 김 안드레아

김 안드레아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1878년에 순교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두 조부모는 면천 중방(충남 당진시 순성면 중방리)에 살고 있다가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면서 몇 차례 피난하였다. 처음에는 수원 결매(충남 아산시 인주면 결매리)로, 다음에는 신창 남방제(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로, 마지막에는 홍주 신리(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리)로 갔다가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김 안드레아 역시 면천 중방 태생이어서 조부모를 따라 함께 피난하면서 다른 교우들이 체포되는 장면도 목격하였다. 어린 나이에 여러 곳을 떠돌던 그는 박해가 끝날 무렵에는 강경에 정착하여 살았고, 그가 목격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정리번호 21.

죄인 은진 강경 공소 김 안드레아

죄인의 조부모인 『치명일기』 418의 김 필립보와 419의 박 마리아는 충청도 면천^{沔川} 중방 사람으로 수원 결매로 이사하여 병인 풍파에 신창 납방제로 피신하여 있더니, 무진년 7월 16일에 홍주 신리 사는 최중오가 자기 사위인데, 내외 함께 사위집에 갔다가 5일 후계 동시에 일어나 신공^{神功} 하다가 마침 문밖에 찾는 소리 있거늘, 필립보가 출사^{出使} 온 줄 이미 알았으나 안연히 신공을 마친 후 나가니, 출사들이 춤추며 하는 말이 “천주학꾼 잡기가 이렇게 쉽다”하며 달려들어 채물 내고 사람 다 대라고 몹시 치니, 다만 “아이고!” 소리 높이하고 다른 말 아니하니 그날 이 모양으로 7차 형벌하여 남양^{南陽}으로 갈 때에 그 아내 박 마리아는 그 장부와 포교들이 오지 말라 하여도 죽기로 도모하여 기어이 따라가서 8월 초3일에 함께 치명하니, 나이는 내외 동갑으로 그때 57세라.

수원 결매 사는 김 토마스 홍서 내외도 함께 간헐다가 토마스는 필립보와 같이 치명하고, 토마스의 아내는 살아 나와서 이 위의 사정과 시체 감장^{勘葬} 한 일을 자세히 말하여 전하였고, 잡힐 때 일은 죄인이 친히 눈으로 보았나이다.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88~89쪽.

② 김 시리시오

내포 사람 김 시리시오는 아버지 김 필립보와 어머니 박 마리아가 1868년에 순교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시리시오는 1866년 부모를 따라 수원으로 이주했다가 동네 교우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피난했다. 하지만 2년 후 무진년에 그의 부모님이 체포되어 순교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이후 그는 떠돌아다니다가 박해가 끝날 무렵 강경에 정착하였고, 54세의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순교 사실을 증언하였다.

정리번호 120.

김 필립보는 본디 충청 내포 사람이라. 그 조모께 성교 말씀을 듣고 수계할 마음이 나 그 부친께 놀리어 뜻대로 배우지 못하더니, 후에 그 부친과 함께 성교 도리를 배워 영세하고 열심히 수계하며 자녀를 가르쳐 본분을 지키고 이웃 외인을 권하여 혹 성교에 들어오게 하며 동네를 주간^{主幹} 함으로 신부 임하시면 모든 일을 돌보며 교우들을 타당히 성사 받게 배치하여 여러 해를 지내더니, 병인년 군난에 수원서 살 적에 동네 교우가 많이 잡혔으되 피신하였더니, 그 후 무진년에 남양 포교에게 잡혀 혹형하며 당과 그 아들을 대라 하나, 아는 이는 이미 잡혀 죽고 다시 아는 자가 없다 하매 그 내외를 박 마리아와 함께 남양으로 잡아가 옥에 있는 지 한 달 후 내외 다 교하여 죽이니, 나이 59세요, 그 아내 박 마리아는 자원하여 가서 장부와 함께 죽으니, 나이 59세요, 증인은 강경 사는 그 아들 김 시리시오니 나이 54세라.

김 비오는 본디 충청 예산 사람이라. 그 부모 적부터 성교 말씀을 들었으나 수계는 지키지 못하더니, 30세 후에 성교 도리를 배워 영세한 후 착실히 수계하며 여러 해를 지낸 후 무진년에 천안 노루지 살 적에 홍주 포교에게 잡혀 책과 당을 대라 하며 혹형이 무수하나 한 사람도 대지 아니하고 홍주로 가 영장 문목에도 굴함이 없이 옥에 있는 지 오래지 않아 교하여 죽이니 나이 61세요, 증인은 강경에 사는 그 사위 김 시리시오니 나이 54세라.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209~210쪽.

③ 김 스테파노

충청도 홍주 사람 김 스테파노는 어머니 손 세실리아의 순교를 증언하였다. 손 세실리아는 남편을 여의고 아들 3형제를 키우며 홍주에 살고 있었다. 병인박해가 시작되었어도 피난하지 않고 몇 해를 지내다가 1869년 체포되어 55세의 나이로 홍주에서 순교하였다. 아들 김 스테파노는 박해를 피해 강경으로 이주하여 살았고, 어머니의 순교 행적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정리번호 120.

손 세실리아는 본디 충청 홍주 사람이라. 그 부모가 다 성교를 봉행함으로 잘 가르쳐 출가한 후 자식 3형제 있어 본분대로 잘 가르치더니, 장부는 이미 병들어 죽고 자식들만 데리고 몇 해를 지내더라. 여러 해 군난에 교종이 많이 잡혀 죽고 어지러 우나 주명만 기다리고 있더니, 기사년에 홍주 포교에게 잡혀가 영장이 묻되 “네 천주학을 하느냐?” 답하길 “천주 성교를 봉행하였나이다.” 영장이 다시 묻되 “네 이제라도 다시 성교 앓겠다 한 말만 하면 놓을 것이니, 관령을 따르고 나가라” 하니, 그는 “만만코 못하나다. 목숨 살자 하고 어찌 천주를 배반하로리까?” 하니 하옥한 지 며칠 후에 絞하여 죽이니 나이 55세더라. 증인은 강경에 사는 그 아들 김 스테파노니 나이 39세라.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210쪽.

④ 전 마리아

본래 경기도 안산에 살던 전 마리아는 남편 유 마오로(치명일기에는 바오로), 큰아들 유 안드레아, 둘째 아들 유 요셉의 순교를 증언하였다. 전 마리아 가족은 안산 수리산에 살던 중 병인박해를 만났다. 남편 마오로는 베르뇌 주교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박해 상황을 더 알아보려 서울에 갔다가 밀고자로 인해 체포되었다. 끝까지 신앙을 증거 한 그는 1866년 46세의 나이로 양화진(절두산)에서 참수 치명하였다.

큰아들 유 안드레아는 충북 제천에 있던 배론 신학교에서 6년을 공부한 신학생이었다. 병인박해로 스승 신부들이 다 잡혀 순교하자 그는 어머니 전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살았다. 2년 후 1868년 서울 포교들이 유 안드레아를 체포하여 갔다. 그가 신학생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더욱 큰 혹형을 당한 후에 19세의 나이로 교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남편과 큰아들을 잃은 전 마리아는 남은 자식 둘을 데리고 충청도 아산 땅으로 내려가 비신자들 마을에서 살았다. 10년이 더 지난 1879년에 뜻밖에도 서울 포교들

이 들이닥쳤다. 천주를 믿지 않는다는 말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구해주겠다고 나섰으나 뜻을 굽히지 않자 둘째 아들 유 요셉이 잡혀 아산 감옥에 갇혔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다른 수인의 도움으로 도망쳤으나 어머니와 동생이 인질로 잡히자 자수하여 다시 갇히게 되었다. 서울로 끌려간 요셉은 두 달여 동안 갇혀 있다가 상부의 명에 따라 28세의 나이로 굶겨 죽어 순교하였다. 이후 전 마리아는 강경으로 이주하여 살던 중 63세의 노인이 되어 가족들의 순교 행적을 증언하게 되었다.

2) 은진 고평발의 증인들

‘은진 고평발’은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의 자연부락이다. 이곳에서 석기시대의 돌화살촉이 발견되어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살던 지역임이 드러났다.²⁵ 언제부터 이곳에 교우들이 살았는지 알 수 없으나 박해를 피해 온 교우들의 몇몇 흔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① 김 아가다

결혼하여 충청도 홍주에 살던 김 아가다는 1867년 남편 김 예로니모가 체포되어 순교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남편은 두 차례에 걸쳐 체포되었는데 서양 선교사를 숨겨줬다 하여 엄한 벌을 받고 48세의 나이로 공주에서 순교하였다. 김 아가다는 남편의 순교 이후 떠돌아다니다가 은진 고평발에 정착하여 살던 중 68세의 노인이 되어 남편의 순교를 증언하였다.

정리번호 120.

김 예로니모는 본디 충청 홍주 사람이라. 본성이 순량하고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 경문을 열심히 배워 착실히 수계하며 자녀를 가르쳐 자기 본분을 극진히 하며 농사하여 생활하더라. 병인년 군난에 홍주 포교가 들어와 온 동네 교우를 다 잡으매 본

판에 돈을 드리고 청을 얻어 아무 말없이 놓아 폐단이 없더라. 그 이듬해 정묘년에 공주 포교에게 온 동네 교우 20여 인과 함께 잡혀 일당과 책을 대라 하며, 양인의 주인이라 하여 중한 죄책으로 잡혀 공주로 가더라. 4월 후 여덟 사람을 교하여 죽이니, 나이 48세더라. 증인은 은진 곱발 사는 그 아내 김 아가다니 나이 68세라.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209쪽.

② 이 프란치스코

충청도 내포 사람인 이 프란치스코는 아버지 이 가브리엘과 고모 이 아가다, 그리고 당숙 이 토마스의 순교를 증언하였다. 아버지 이 가브리엘은 동생 이 아가다와 동정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었다. 동생 아가다는 동정을 지키며 살았지만 가브리엘은 결혼하여 아들 프란치스코를 낳았다. 1866년 가브리엘과 아가다 남매가 체포되어 가브리엘은 홍주에서, 아가다는 공주에서 순교하였다. 프란치스코의 당숙 토마스는 1867년 공주 포교에게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이 프란치스코는 어려서 이 사실을 보고 들었고, 은진 곱발에 살던 때 34세의 어른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증언하였다.

정리번호 120.

이 아가다는 본디 충청 내포 사람이라. 본성이 순량하고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 도리를 잘 배우고 열심히 수계하더라. 차차 장성하매 수정^{守貞}할 마음이 간절하므로 혼배하지 아니하고 정덕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여 오라비와 함께 종신 수정하기로 언약하고 날마다 열심히 염경 기구하며 날을 지내더라.

후에 산곡에 이사하여 농사하며 생활할 적에 병인년 군난에 공주 포교에게 잡혀 형벌하며 일당을 대라 하니, 본디 원의가 군난을 만나면 위주 치명할 뜻이 평시에 있었으므로 형벌을 감수하여 지내더라. 잡아 공주로 가니, 영장 문목에도 굴함이 없으

매, 옥에 가둔 지 수일 후 다른 여인과 함께 빼어내어 가족家屬을 삼고자 하는 자가 있어 두 여인을 궁벽窮僻한 집에 두더라. 이에 아가다가 저들의 계교를 알고 두 여인이 함께 문을 깨치고 고성하며 나오되 “나는 이미 나라 죄인이라. 법대로 다스릴 일인데 어찌 사사로이 처단하려 하느냐?” 하며 나온 즉 옥에 가둔 지 10일 후에 다른 교우와 함께 교絞하여 죽이니, 나이 38세더라. 증인은 은진 곱발 사는 이 프란치스코니 나이 34세라.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208쪽.

3) 은진 쇠목의 증인들

충남과 전북 경계의 산속에 위치한 쇠목(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은 조선 시대에는 은진현에 속한 땅이어서 ‘은진 쇠목’이라 불렸다. 박해를 피해 쇠목으로 이주해온 교우들이 몇몇 순교자들의 행적을 증언하였다.

① 김 베네딕도

진잠 바랑골(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²⁶에 살던 김 베네딕도는 1866년 9월 형 스타니슬라오와 함께 진잠 포교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전자연이라는 교우가 형벌에 못 이겨 이름을 고하여 그리된 것이었다. 형 스타니슬라오는 공주로 옮겨져 순교하였고, 자신은 풀려나와 은진 쇠목에 와서 살던 중에 보고 체험한 내용을 증언하였다.

정리번호 28.

증인 은진 쇠목 김 베네딕도 눈으로 보았나이다.

죄인의 형 김 스타니슬라오는 진잡 바랑골 살더니, 병인년 9월에 본읍 포교에게 잡혀 옥수^{獄囚}한 지 3일 후 죄인이 들으니 교우 전자연의 구초^{口招}라 하매 짐짓 옥중에 들어가 전자연을 책하니, 형 스타니슬라오가 죄인을 꾸짖어 왈 “나는 이 날을 기다린 지 오래러니, 네 어찌 남을 탓하느뇨? 물리가 부모와 형제 함께 열심 수계^{守誡}하라”하고 후에 공주로 가서 전자연과 강 서방과 3인이 동일 교^敎하여 치명하니, 때는 병인년 10월 20일이요, 나이는 35세니라.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94쪽.

② 박영근 토마스

은진 쇄목에 사는 박영근 토마스는 병인박해가 일어날 때에 전라도 성지동(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에 살고 있었다. 인근 대성동 신리골(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도 교우들이 있었다. 신리골은 2km 남짓한 가까운 마을이지만 교우들이 비밀리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서로 알지 못하였다.

1866년 성지동에 사는 조화서 베드로, 이명서 베드로, 정원지 베드로, 조윤희 요셉이 먼저 체포되었다. 이어 신리골에서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손선지 베드로, 한재권 요셉이 잡혀 와 7명의 교우가 함께 전주로 이송되었다. 이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킨 후에 전주 숭정사에서 참수로 순교하였다.

박영근 토마스는 이 모든 일을 목격하였고, 박해가 끝난 후 은진 쇄목에 살고 있을 때 1866년 함께 목격한 오사현과 함께 이를 증언하였다. 이 일곱 순교자는 1984년 요한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다.

4) 은진의 증인

은진에 사는 박도일이란 교우는 1868년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그는 박해가 일어났을 때 공주 질울(지롤, 충남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기동)에 살고 있었다. 같

은 마을에 살고 있던 배 바오로와 그 아들 배문보(요한) 부자가 잡힐 때 박도일 역시 체포되었다.

그들은 서울에서 파견된 포교에게 체포되었기에 서울로 끌려갔다. 배 바오로 부자는 1868년 4월 초 10일에 순교하였으나 박도일은 풀려났고, 박해가 끝난 후에는 은진에 와서 살았다. 박도일은 직접 증인으로 나서지는 못했으나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배 바오로의 가족에게 알려주었고, 그 내용이 증언되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4. 강경포 사건(1899)

1899년 강경에서 일어난 강경포 사건은 흔히 ‘강경포 교안²⁷’으로 알려져 있다. 강경포 교안은 강경에서 천주교 신자들과 지방민 사이에 발생한 충돌 사건이다. 이 교안의 경우, 처음에는 화산(나바위)본당에 소속된 강경 신자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갈등이었으나 프랑스 선교사와 공사관, 그리고 조선 외교부의 개입으로 외교 문제로 비화하였다.

이 사건은 1899년 4월 강경에 사는 천주교 신자 김치문이 비신자 조흥도에게 소금을 산 뒤 그 값을 치르지 못해 시비가 일어난 것이 발단이였다. 조흥도는 소금값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김치문이 신분이 낮고,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욕을 하며 폭행하였다. 김치문은 자신의 억울함을 강경공소의 본당신부인 화산(나바위)본당의 프랑스 선교사 베르모렐 *Vermorel, Joseph* (1860~1937, 한국명:장약술) 신부에게 사실을 보고하였다.²⁸ 이에 베르모렐 신부는 본당 신자들에게 조흥도를 데려오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신자들이 조흥도를 폭행하였다. 그러자 조흥도의 친척들과 강경 사람들이 들고일어나 천주교 신자들을 폭행하였고, 베르모렐 신부에게도 물리적 위협을 가하였다.

사건이 커지자 조선 정부와 외교부, 서울의 프랑스 공사관이 개입하여 중재에 나섬으로써 외교 문제가 되었다. 결국, 서울에서 재판을 거쳐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고 일단락되었다. 강경포 교안은 아직 천주교가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사건이었다. 개항기에 이르러, 조선의 법률 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민중들 안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배

척이 여전하였다. 이에 지방에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외교적 힘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려 했고 그 반작용으로 지역 사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다. 강경포 교안은 규모가 큰 사건으로 당시 발행되던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강경포사건 관련 기사

“충청남도 은진싸 물미 강경포에 텨쥬교인들이 교를 빙자하고 형악이 무쌍하야 인민이 부지흘수업는고로 빅성 슈만명이 니러나 교인들을 히히미 직작일에 전보가 세 번 왔는고로 전쥬디방디를 풀어 진압하라하였다는디 혹 교인과 텨쥬교교스 몇치 상하였다 하나 즈서히 알슈 업더라.”

「帝國新聞」 1899년 4월 8일 기사.

“○강경 쇼식) 녀산군 잇는 장교샤가 은진군 강경포에 간즉 히포 거민 최성진등 千여명이 교도와 장교스를 란타하고 잡아간 고로 공쥬 디방디에서 구호 차로 일쇼터를 보니엿는디 그 하회가 엇지 되엿는지 이즉 알슈 업다더라

「獨立新聞」 1899년 4월 8일 기사.

V. 공소들의 설립

박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논산지역의 천주교회는 개항 이후 종교의 자유가 점차 보장되면서 활기를 띠었다. 이는 곳곳에 공소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논산본당이 설립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논산지역의 공소들을 설립연도에 따라 정리하면 본당 설정 이전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1. 강경공소(1882)²⁹

- 주소:논산시 강경읍
- 설립:1882년
- 별칭:강경이공소
- 관련 공소:옴뜸, 잣디, 금정

강경에는 1799년에 이미 신자가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천주교가 조선에 수용된 초창기부터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강경은 1845년 상해에서 출발한 김대건 신부 일행이 배를 타고 도착하여 첫 사목활동을 펼친 곳이다. 이 때문에 1846년 병오박해가 일어났을 때 강경 교우들이 잡혀 순교하였다. 그 후에도 교우들이 계속 공동체를 이루며 강경에 살았으므로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또 한 번 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하였다.

병인박해로 한때 신앙공동체가 와해되었으나 박해 후 교우들이 강경으로 모여들어 공소를 이루었다. 프랑스 선교사 드게트 신부의 편지에 의하면 1878년에 그가

강경, 연산 신외성³⁰, 노사당 소세에서 교우들에게 성사를 준 바 있다.³¹ 하지만 ‘공소’로서 분류되어 판공성사가 집행된 기록은 1882년에 처음 나타난다. 그 해에 ‘은진 강경이’에 프랑스 선교사 리우빌(Liouville, Lucien Nicolas Anatole)(1855~1893, 한국명:유달영) 신부가 방문하여 판공성사를 주었다. 전체 신자 수는 알 수 없으나 5명의 교우가 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했다고 기록되었다.

‘강경공소’라 하여 강경에 국한된 작은 공소가 아니었다. 박해를 피해 강경으로 온 교우들이 점점 증가하였고, 포구와 시장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경은 일찍부터 본당이 설 자리로 여겨졌다. 1897년 조선대목구장 뒤편 주교는 강경에 본당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프랑스 선교사 베르모렐 신부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강경의 옛 봉화대 근처에 마련한 성당 부지가 국유지이고 공간이 협소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인근의 화산(華山) 나바위에 본당이 설립되었다.

화산(나바위)본당이 설립될 때 강경 교우는 113명, 화산(나바위) 교우는 64명이었다. 교세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강경이 중심이 되어야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했던 것이다. 이런 현실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나의 교구였던 조선대목구는 1911년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중심으로 북쪽은 서울대목구, 남쪽은 대구대목구로 나뉘었다. 이때 강경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대목구에 속하였으나 그동안 화산(나바위)본당 관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후에도 오랫동안 대구대목구에 소속되었다.

1921년 들어 논산본당이 설립될 때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가 영향을 미쳤다. 강경공소를 관할하는 본당이 논산에 설립되었으나 강경은 현실적으로 화산(나바위)본당이 가까웠다. 이 때문에 강경 교우들은 교적상으로는 논산본당에 속하면서 주일 미사는 화산(나바위)본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강경 교우들은 공소 자체로 청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일제 당국의 강요에 의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활발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강경공소 교우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본당 승격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대비하여 성당으로 쓸 건물도 마련해놓았으나 해방이 된 후에야 뜻을 이룰 수 있었다. 1946년 강경본당이 설립되었는데 그 해는 성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여 조선대목구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역사가 서려 있는 강경에 본당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강경본당이 생겨났다.



공소 시절부터 화산(나바위)본당과 논산본당 모두에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던 강경본당은 그 유대를 계속해나갔다. 화산(나바위)본당에서 성체거동이 거행되면 함께 참여하였고, 논산본당에서 먼저 레지오마리아를 도입하자 뒤이어 강경에도 도입하여 한동안 전주 꾸리아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이러한 강경공소와 강경본당의 모습은 조선 후기 박해 시기부터 계속되어온 지역 교우들의 신앙 유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1882년 설립된 강경공소가 있던 자리는 강경읍 남교리의 강경상업고등학교 일대이다. 1887~1888년 교세통계표를 보면 그해에는 ‘강경이’라는 이름 대신에 ‘옴뜸’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교우 수는 53명이다. 옴뜸은 현재의 강경 성당 사제관 자리(강경읍 중앙리)로 알려져 있다. 한편, 1898~1899년 통계표에 ‘은진 잣디’라는 공소가 나오는데 교우 수는 20명이었다. 잣디는 성城의 북쪽을 뜻하는 우리말로, 강경읍 채산리에 있는 성북을 가리킨다. 이 공소는 2년 정도 따로 판공성사를 시행하다가 강경공소로 통합되었다. 1921년 논산본당이 설립된 후 인계받은 공소 목록을 보면 ‘금정’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일제강점기 들어 강경읍 채산리가 금정錦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므로 옛 잣디공소가 금정공소로 다시 살아난 셈이다.

2. 삼산공소(1883)³²

- 주소:논산시 성동면 삼산리
- 설립:1883년
- 별칭:하리공소
- 관련 공소:대하리(하리), 불암, 석교동, 대티, 성티

논산본당이 설립되기 전 논산시 성동면에는 삼산, 하리, 불암, 대티, 성티라 불리는 공소들이 있었다. 이 지역은 금강에 맞닿은 논산천의 북쪽 저지대로 대규모 간척이 이뤄진 땅이다. 박해를 피해 떠돌던 교우들이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모여 삶을 도모하면서 공소들이 설립된 듯하다.

삼산공소는 1883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첫해에는 공소 이름만 나오고 교우 현황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음 해부터 나타나는 통계에 의하면 3년간 20~24명의 교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88~1889년에 작성된 통계를 보면 ‘석성 대하리’(충남 논산시 성동면 삼산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삼산공소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까운 지역의 공소로 생각된다. 과거 성동면 삼산리는 석성군 지역이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석성 대하리의 교우 수는 20명이었다. 이듬해 ‘삼산공소’라는 이름으로 보고된 교우 수가 19명이므로 삼산과 대하리는 같은 공소였을 가능성이 크다.

논산본당이 설립되었을 때 성동면에 ‘하리공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삼산공소라고 판단된다. 삼산리 안에는 삼산_{三山} 아래에 있다 하여 대하리(대하)와 소하리(소하)라 불리는 동네가 있었다. 두 동네를 통칭하여 하리_{下里}라고 불렀고, 1920년대에는 ‘삼산’보다는 ‘하리’라는 이름으로 공소를 칭한 듯하다. 화산(나바위)본당 관할이었던 하리공소는 1910~1911년간에는 교우가 83명으로 증가하여 큰 공소로 성장하였다.

같은 성동면 지역에 불암_{佛巖}이라는 공소가 있었다. 1893~1894년 사이에 보고된 통계표에 나타나는 이 공소는 교우 수가 14명이었다. 이 공소 역시 화산(나바위)본당 베르모델 신부가 1910~1911년간에 보고한 통계에 의하면 47명으로 증가해있었다.³³

성동면 원봉리로 추정되는 석교동공소는 1887~1888년의 통계표에 나온다. 교우 수는 70명으로 작지 않은 공소였지만 이후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옛날 원봉

리에는 돌다리(석교)라 불리는 큰 다리가 있었고,³⁴ 1887~1888년의 통계표에는 읍땀公所³⁵ 다음으로 석교동공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오기에 석교동은 강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인 듯하다. 하지만 논산에서 강경으로 이어지는 논산천 일원에는 ‘석교’로 불리는 지명이 여러 곳이어서 어느 한 곳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성동면 원봉리에는 ‘대티’라 불리는 공소가 1897~1898년 교세통계표에 나온다.³⁶ 이곳 역시 그해에만 통계가 나오는데 교우 수는 23명으로 작은公所였다. ‘은진대티’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었으므로 원봉리에서도 남동쪽의 저지대 지역에 해당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있기 전까지 북서쪽 지역은 석성군에, 남동쪽 지역은 은진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³⁷

1898~1899년 통계표에 등장하는 성티公所(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는 대티公所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³⁸ 그해의 성티公所 교우 수는 28명이었다. 두 공소가 서로 인접해있고, 한 해의 간격을 둔 교우 수가 각각 23명, 28명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서로 번갈아 가며 판공성사를 시행하는公所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정황을 볼 때 석교동, 대티, 성티의 세公所는 서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석교동공소의 위치를 원봉리의 석교로 추정한다면, 대티공소가 석교동공소의 맥을 잇는公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삼산공소가 위치한 성동면 지역은 여러公所들이 이름을 달리 하며 존재했었다. 박해가 끝난 직후 온전한 주거를 갖지 못한 교우들이 생계를 위해 계속 이동한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변화가 심했던 성동면의公所들은 점차 삼산公所로 통합되었고, 논산본당이 설립될 때에는 하리公所로 명칭이 변경되어 논산 관할에 포함되었다.

3. 은진公所(1885)³⁹

- 주소:논산시 은진면 연서리
- 설립:1885년
- 별칭:연서리公所
- 관련公所:방고개, 곰밭



기록상 은진에 복음이 전해진 시기는 1789~1801년 무렵이다. 은진사람 몇몇이 진산의 윤지현(프란치스코), 정산의 이도기(바오로)에게 교리를 배워 신앙생활을 하다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유배형을 받았다. 박해 중에도 은진에는 신앙공동체가 계속 유지되었기에 병인박해 때에 여러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다. 1821년 은진에서 태어난 오종례(야고보)가 한 예인데, 그는 1840년에 전주에서 순교하였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다.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 은진의 신앙공동체는 와해 되었다가 박해가 끝나고 공소로 거듭났다.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교우들이 기존의 교우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룬 듯하다. 은진공소에 대한 첫 기록은 1885년이다. 그 해에 ‘은진 방고개’에 속한 교우가 46명이었고, 판공성사를 본 교우는 34명이었다. ‘방고개’는 은진면 연서리에 있는 방죽거리의 고개로 추정되므로 은진공소의 전신으로 여겨진다. 은진공소 교우들은 인근의 강경공소나 ‘은진 곶밭’(충남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공소와 더불어 때에 따라 통합하여 판공성사를 시행하였다.

은진공소는 오랫동안 강당 건물 없이 ‘공소집’에서 모임을 갖다가 1949년에 이르러 별도의 건물을 지었다. 그때에는 본당신부가 공소에 머물며 5대의 미사를 봉헌하는 ‘다섯 대’ 공소로 커졌기 때문에 강당 신축을 미룰 수 없었다. 매일 아침 한 대의 미사가 봉헌되므로 본당신부가 적어도 5일을 머물며 판공성사를 지낼 만큼 커졌던 것이다. 1949년 교우들의 노력과 논산본당 생제 신부의 지원으로 강당을 짓기 시



작하였으나 이듬해에 상량식을 한 상태에서 6·25전쟁이 발발했다. 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1954년에 가서야 완공을 볼 수 있었다.

은진공소의 첫 관할 본당은 되재본당이었는데 1897년 화산(나바위)본당이 설립되자 관할이 변경되었다. 1921년 논산본당이 설립되어 또 한 차례 관할이 변경되었고, 1958년 연무본당 설립과 더불어 거듭 관할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갈매울공소(1887)⁴⁰

- 주소:논산시 가야곡면 목곡리
- 설립:1887년
- 별칭:목곡공소
- 관련 공소:두강이, 등리, 말목(만목)

용기를 굽는 비신자 마을이었던 갈매울은 박해를 피해 온 몇몇 교우들로 인해 점차 교우촌으로 변모했다. 박해가 끝난 후 1887년 프랑스 선교사 두세(Doucet, Camille Eugène)(1853~1917, 한국명:정가미) 신부가 방문하고 갈매울공소에 관한 첫 기록을 남겼다. 그해에 교우 수가 99명이었으며, 74명이 관공성사를 볼 정도로 규모가

『뮈텔 주교 일기』 1896년

11월 4일 은진의 갈매울 웅기점에 갔다. 20리 길이다. 도착하자마자 내 말이 마구를 모두 단 채 도망가, 되재로 돌아왔더니 보두네와 라크루 신부는 전주로 떠나고 없었다. 저녁에 고해성사를 주었다.

11월 5일 작년 12월 30일에 처형된 시종 임최수의 아들이 찾아왔다. 그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11월 6일 제단을 준비해 놓은 움에서 견진성사. 온종일 고해성사. 빈대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박 안당 집으로 자리 갔다. 그 집은 깨끗하고 손질이 잘되어 보였다. 하지만 빈대는 여전하다.

11월 7일 빈대 때문에 하얗게 밤을 새웠다. 9시에 30리 길 고산 안심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 인내 장터를 지나서 갔다. 저녁에는 진산과 금산에서 온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었다. 공소 장소는 이 요한 회장의 집에서 준비했는데, 안방은 제대(祭臺)로 쓰이고, 오른쪽의 방들은 여교우들만을 위해 쓰기로 되었다.

졌다. 1896년 11월 조선대목구장 뮈텔 주교가 갈매울을 방문하여 나흘간 머물며 관공성사와 견진성사를 거행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갈매울은 웅기 마을이었다. 당시 교우는 141명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였으나 별도의 공소 건물은 없어 개인 집에 제단을 마련해놓고 미사를 봉헌했다.

갈매울은 산속에 있는 공소인 데다가 아직도 박해의 여파가 남아 있어 1903년 화적 떼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가난이 극심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활빈당(活貧黨)이나 화적들이 약탈을 일삼았다. 산골에 거주하는 교우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주요 약탈 대상이었다. 1903년 7월 화적들이 갈매울을 습격하여 여자 교우들을 유린하고, 남자 교우들을 폭행하였으며 재산도 빼앗았다. 그럼에도 관가에서는 천주학생들이라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되재본당의 관할에 있던 갈매울공소는 1921년 논산본당이 설립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논산으로 이관되었다. 1920년대는 갈매울공소가 가장 융성한 시기여서 웅



기를 굽는 가마가 3곳이나 있을 정도였다. 1924년 논산본당 주임 공베르 신부의 보고에 의하면 200여 명이 동네에 거주했는데 모두가 교우였고, 판공성사를 보는 이도 150명이나 되었다.

갈매울은 공소가 큰 만큼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했다. 별도의 공소 강당이 있었으므로 교우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도하였고, 판공 때 찰고(교리문답)를 하도 잘하여 ‘발동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반면에 교우들의 개인주의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침례까지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려는 교우들이 있어 본당신부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갈매울공소는 강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 지번이 294번지로 통일되어 있을 만큼 공소와 동네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그렇게 성장하던 공소는 현대에 이르러 이농 현상이 심화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교우들의 오랜 생업인 웅기 굽는 일마저 1983년 3월에 마지막 불을 피워 마무리되었다. 그 사이 관할구역이 바뀌어 1958년 연무본당이 설립되자 이관되어 논산본당에서 분리되었다.

차레	성명	재직 기간	차레	성명	재직 기간
1	미상		8	박영득 마태오	1978~1993
2	이홍룡 바오로	1917~1957	9	이영모 루카	1993~1995
3	차영문 바오로	1957~?	10	백순기 루카	1995~2000
4	서낙중 요한		11	박영득 마태오	2000~2002
5	이영열 유리아노		12	문기연 다두	2002~2006
6	임헌국 발라바		13	박영득 마태오	2006~?
7	나종수 야고보				



갈매울공소가 위치한 가야곡면에는 남서쪽으로 두강이공소, 북쪽으로 등리공소가 있었다. 1895년 설립된 두강이공소(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는 처음 통계에 나타나는 교우 수가 21명이었다. 이후 계속 성장하여 1899~1900년 사이에는 52명까지 증가하였다. 등리공소(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는 1897년에 설립되었는데 교우 수가 14명이었다. 화산(나바위)본당에 속해 있던 시기에 보고한 1910~1911년 통계표에 의하면 59명까지 증가하였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두강이공소는 그 명칭이 사라졌고, 논산본당이 설립될 때 등리공소만 그대로 남아 논산 관할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편입 당시 등리공소는 교세 현황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에 더 이상 공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까운 갈매울공소에 통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갈매울공소와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공동체는 말목공소(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이다. ‘만목’이라고도 불리지만 남쪽의 전라도로 넘어가는 말목재 아래에 있는 지역이므로 ‘말목’이 정확한 이름인 듯하다. 말목공소가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나 해방 후에는 30여 명 정도의 교우들이 있었다고 한다. 교우가 그리 많지 않아 가까이 있는 쇠목공소와 함께 판공성사를 보았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공소여서 대부분의 교우들이 고향을 떠나자 말목공소는 갈매울공소로 통합되었다. 1958년부터 연무본당의 관할이 된 말목은 2006년에 이르러 공소가 아닌 구역으로 편성되었다. 비록 교우가 많지 않지만 오래된 교우촌의 상장을 살리기 위해 판공성사를 따로 시행한 바도 있다.

5. 쇠목공소(1892)⁴¹

- 주소: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 설립:1892년
- 별칭:중산공소, 세목공소
- 관련 공소:양촌

조선 후기 박해 시기에 교우들은 접경지대로 피난하여 경계를 넘나들며 안전을 도모하였다. 쇠목공소가 위치한 양촌면 중산리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어서 좋은 피신처였다. 쇠목은 남동쪽으로 작봉산을 넘어 4km 정도만 가면 전라도의 되재성당에 이를 정도로 접경에 위치해 있다.

쇠목공소는 ‘세목’이라고도 불렸는데 1892년에 첫 기록이 나온다. 프랑스 선교사 우도 신부가 1892~1893년 사이에 은진과 진산 지역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이다. 그 해에 쇠목의 교우는 15명이었고, 11명이 판공성사를 보았으므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다. 쇠목의 교우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밝혀진 이들이 있다. 박영근(토마스)은 쇠목에 살면서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7명의 순교자들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김 베네딕도라는 쇠목 교우 역시 병인박해 때 순교한 김 스타니슬라오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 순교자들이 체포된 지역은 전라도 전주 지역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쇠

양촌공소



목에 사는 교우들 상당수가 외지에서 피난을 와 정착했음을 시사한다.

쇠목공소는 1893년 설립된 되재본당에 가까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되재 관할에 있었다. 본당에 가까운 공소였기에 오히려 공소 교우의 활동이 담긴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계속 성장하여 1921년 논산본당이 설립되어 편입되었을 때 쇠목공소의 교우는 122명까지 증가해있었다. 1958년 연무본당이 설립되면서 쇠목공소는 또 한 번 관할이 변동되었다. 이후 이농 현상으로 교우가 감소하자 쇠목공소는 이웃 공소와 번갈아 가며 관공성사를 시행하는 작은 공소가 되었다. 나중에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양촌면 인천리에 있는 양촌공소에 통합되었다.

양촌공소는 1888년 프랑스 선교사 두세 신부의 방문으로 설립되었다. 첫 방문 때의 교우 수는 65명이었는데 이후 교세통계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인근 쇠목공소나 별곡에 있는 공소에 통합되어 관공성사를 보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 1961년 통계표에 다시 양촌공소가 등장하는데 교우가 45명이었다. 그동안 양촌은 논산본당에서 연무본당의 관할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죽평공소(1894)⁴²

- 주소: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 설립:1894년
- 별칭:댓들공소(대뜰공소)

죽평^{죽평}은 댓들(대뜰)을 한문으로 쓴 명칭으로 대나무가 무성한 동네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죽평공소의 옛 이름은 댓들공소로 1894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때 교우 수는 17명으로 그리 큰 공소는 아니었으나 1910~1911년간에 들어서는 93명으로 증가하였다.

죽평공소가 있는 죽평리는 예전에는 은진군 구자곡면 산양리^{山陽里}에 속해 있었으며, 1963년 연무읍에 편입되었다. 공소는 원래 화산(나바위)본당 관할에 있었다가 1921년 논산본당에 편입되었는데, 당시 교우 수는 30명이었다. 죽평공소의 설립 과정과 옛 모습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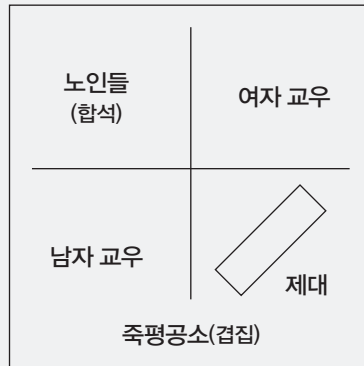
죽평공소에 관한 증언⁴³

우리 죽평공소(지금은 연무본당 관할)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공소에서 한 교우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성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고 공 신부님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동네에서 명석말이를 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냉담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나 죽을 때에 고해성사를 보고 돌아가셨다. 명석말이를 명한 것은 공소회장님이셨다. 공 신부님은 당시 명석말이가 뭔지를 모르셨다고 한다.

옛날에는 불란서 사람들을 대인^{대인}이라고 불렀다. 발음이 어려우니까 ‘다인’이라고 불렀고, 예전엔 양반, 평민, 상놈 세 계층이 있었다. 다인은 양반 위에 군림했다. 그래가지고, 조선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는 양반 중에 제일 낮은 생원 벼슬을 받았다. 우리 소유의 몇 만 평이 큰 산이 있었다. 지금 논산훈련소 M1 사격장 일대 15,000평이 우리 산이었다. 옆 동네에 공소가 생겼는데 그 공소회장이 우리 산에서 나무를 해갔다. 화목^{火木}으로 쓰기 위해 가지를 쳐서 묶어놓았었다. 우리 집안이 양반 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네가 어째서 우리 산에서 나무를 해갔느냐, 이 상놈아’하고 말하며 싸리문을 바쳐놓는 기둥 나무로 그를 때렸다. 그가 ‘나는 모르고 서 회장이 시켜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고서 그는 서 회장에게 먼저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곧 박 회장님이 올 테니 잘 대접하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도착하여 ‘서 생원’하고 부르니까 서 회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극진히 대접했다.

거기서 술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게 되었는데, 서 회장님이 『천주실의』를 주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잘 알려주고 있으며 유교니 뭐니 하는 종교는 헛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할아버지가 이 교리서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통독하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와 더불어 영세를 하셨다. 이를 계기로 죽평공소가 생겼는데 두 대 공소⁴⁴로 번창하였다.

우리 부락은 120여 가구로 산골치고는 큰 부락이었다. 논산에 본당이 설립되면서 우리는 전라도 본당에 속해 있다가 논산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초대



죽평공소의 옛 공소집 자리배치도

회장이 되었고, 아버지가 이어받았고 내 동생이 회장이 되고 그 밑으로 이어지고 하여 5대에 걸쳐 회장을 역임했다. 연무 본당이 생기면서 거기에 속하였고 지금은 반으로 편성되어 구역장을 맡고 있다. 할아버지는 미카엘이시고, 아버지 박용서(요한)이시다. 나는 [대건]학교로 왔기에 동생이 회장을 했다. 동생은 박길용(다

두)이다. 이게 죽평공소의 역사다.

죽평 ‘공소집’은 칸막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방마다 [미닫이문으로 된] 턱이 있어서 남녀 교우가 분리되어 앉게 된다. 우리 집이 공소집이었는데 방이 네 칸이었다. 남자, 여자는 분리해서 앉고 노인들 칸은 남녀 합석해서 앉았다. 본래 공소집을 6칸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흥년이 들었다. 기미년 흥년. 그래서 축소해서 지었다. 마침 목수가 교우였는데, 마루 동쪽 칸에다가 십자가를 걸었다.

7. 돌분이공소(1894)⁴⁵

- 주소: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 설립:1894년
- 별칭:석종공소, 돌부니공소
- 관련공소:화마루

돌분이공소는 1894년에 설립되었으며 되재분당 관할이었다. 설립 때의 교우 수는 알 수 없으나 1896~1900년 사이에 보고된 통계를 보면 41~48명 사이를 오가는 작은 공소였다. 공소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공주에서 되재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에 조선대목구장 뒤편 주교가 전라도 지역의 분당을 방문할 때 꼭 지나는 곳이었다.

『뫼텔 주교 일기』의 기록

(1896년) 10월 29일 (경천 장터에서) 막 떠나려 할 때 돌분이(석종石宗)의 교우들이 술과 과일을 갖고 왔다. 그들은 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어제 저녁에 왔었으나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므로 집으로 되돌아갔다가 (10리 길) 오늘 아침에 다시 온 것이다. 그들은 내가 만나려고 하는 노성 군수가 부재중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곧장 가는 길로 가기로 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른쪽의 큰길을 버리고, 왼쪽의 고산高山길을 택했다. 돌분이의 두 교우가 우리를 수행했다. 10시에 연산 근처, 팽이다리라고 하는 주막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퇴재퇴재의 교우 두 명이 거기에 우리를 맞으러 왔다. 신부 댁이 가까워지면서 사방에서 교우들이 우리를 마중 나왔고, 곧 비에도 신부도 많은 교우들을 이끌고 왔다. 우리는 교우들이 사는 한 마을에 잠시 멈춘 다음 길을 계속, 마지막 산골짜기 길을 넘었다. 100여 명의 교우들이 행렬을 이루었고, 이 행렬은 구불구불한 산속 길에서 계속되었다. 5시경, 우리는 퇴재에 도착했다. 이 교우촌은 산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넓은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당과 신부 댁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유일한 기와집이다.

(1897년) 1월 23일 퇴재를 출발. 9시경, 모두네와 라크루 신부는 전주 길로 떠났고, 나와 비에도 신부는 70리 거리의 노성魯城 돌분이를 향해 떠났다. 포근한 날씨. 쇠목을 거쳐 올 때와 같은 길로 돌아왔다. 1시에 연산連山 근처 팽이다리 주막에 이르렀고, 5시에는 계룡산 밑의 공소에 도착했다.

(1899년) 12월 5일 성 방지거 사베리오 침례. 정오가 되어서야 돌분이와 삼배실의 교우들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수가 얼마 안 되어 결국 오후 3시쯤에 우리는 해방되었다. 말에 안장을 얹어 타고 관찰사를 만나러 갔다. 그는 매우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하여 차와 포도주를 대접했고 이어 당면, 만두, 떡, 약과, 과자 등 관찰사의 집에서 직접 준비한 진수성찬이 들어왔다.

1896~1899년의 『뫼텔 주교 일기』에 돌분이공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1896년 10월 교구장 뮈텔 주교가 판공성사와 견진성사를 위해 되재본당을 방문하자 돌분이공소 교우들은 전날 밤부터 길목에서 주교 일행을 영접하였다. 다음날 주교 일행과 함께 되재까지 먼 길을 행렬하여 가서 본당 교우들과 함께 성대한 전례에 참여하였다. 위의 기록을 보면 박해 시기를 벗어난 교우들이 기쁨 속에서 판공과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교우들이 어우러져 즐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897년 공주본당이 설립되자 돌분이공소는 공주본당 관할이 되었다. 때문에 1899년 12월 5일 일기에는 돌분이 교우들이 공주로 가서 주교 일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1897~1898년에 공주본당 기낭 Guinand, Pierre Jean(1872~1944, 한국명: 진보안) 신부가 작성한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돌분이공소 교우들은 58명이었다. 13년이 지난 1910~1911년 보고서에 돌분이공소 교우는 60명으로 나타난다. 이후 한동안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데 공주본당의 어느 공소에 편입되어 있었던 듯하다.

1921년 논산본당이 설립되자 돌분이공소(석종공소) 지역은 논산 관할이 되었다. 돌분이 지역에 교우가 증가하자 1940년경에 인근 계룡면 화현리에 화마루공소가 설립되었다.⁴⁶ 1955년 논산본당 통계에 의하면 돌분이공소에는 61명, 화마루공소에는 102명의 교우 소속되어 있었다.⁴⁷ 1957년에 이르러 논산본당과 공주본당 간의 관할 구역 조정에 따라 화마루공소는 공주본당으로 이관되었고, 돌분이공소는 논산본당에 그대로 남았다. 이후 돌분이공소는 크게 성장하여 1964년에 134명이 이르기까지 하였다.

8. 동산공소(1894)

- 주소: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 설립:1894년
- 별칭:독각골공소

‘독각골’로 불리던 동산공소는 1894년에 설립되었으며 화산(나바위)본당 관할이었다. 예전에는 은진군 구자곡면의 관할이었는데, 1963년 1월 1일, 논산군 구자곡면과 익산군 황화면이 연무읍으로 통합·승격되었기에 지금은 연무읍에 속한다. 공소가

설립되던 해의 교우 수는 7명으로 그리 많지 않았으나 1896~1897년 사이의 교세통계에 의하면 34명까지 증가하였다. 화산(나바위)본당 관할에 있던 1910~1911년간에는 교우가 86명까지 증가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 교우가 감소하여 1921년 논산본당이 설립될 때에는 27명에 불과했다. 지금은 연무읍 동산리가 연무본당 관할에 속해 있으며 동산공소는 폐지되었다.

9. 장바탕이공소(1898)⁴⁸

- 주소:대전시 서구 오동
- 설립:1898년
- 별칭:어리울공소, 오리공소
- 관련 공소:원정, 서평(서편이)

지금은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속해 있는 옛 ‘진잠군’ 산간지역은 1940년대까지 논산본당 관할이었다. 그때까지 대전 서남쪽에는 진잠 전체를 아우를만한 본당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목동에 자리 잡은 대전본당과의 거리도 멀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산간지역의 특성상 주변 본당들과의 연결이 어느 쪽이 더 편하다고 할 수도 없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돈이 없어 걸어 다니는 가난한 교우들에게는 거리가 가까운 곳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더라도 버스 노선이 편리한 곳이 좋았다.

이런 가운데 교우가 증가하여 논산본당이 관할하던 대전지역에는 장바탕이(대전광역시 서구 오동), 원정(대전광역시 서구 원정동), 서평(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등 세 개의 공소가 생겨났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장바탕이공소는 1898년 설립된 어리울공소에서 비롯되었다. 장바탕이와 2km 남짓 떨어진 같은 골짜기 안에 위치한 어리울은 박해를 피해 숨어든 웅기장이 교우들이 설립한 공소였다. 진잠에 사는 비신자들의 탄압과 도적 떼들의 공격 속에서도 꾀꾀하게 자리 잡은 어리울공소는 1912년 무렵부터 장바탕이에 편입되었다. 장바탕이 역시 웅기장이 교우들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장바탕이가 점점 커지면서 어리울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소로 발전하였다. ‘서편이’라

고도 부르는 서평공소는 장바탕이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있었다. 1904~1908년 사이에 설립되었는데 기록에 나타나는 첫해의 교우 수는 38명이었다. 원정공소는 장바탕이에서 북서쪽으로 6km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었고, 1912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설립되었다. 교우는 그리 많지 않아 20명 남짓이었다.

대전지역의 세 공소는 처음에는 되재본당의 관할이었다. 1921년 논산본당이 설립되자 관할이 변경되어 오랫동안 논산의 공소가 되었다.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후 대전본당이 목동에서 대흥동으로 옮겨지자 1945~1948년 사이에 장바탕이와 주변 공소들은 대전으로 편입되었다. 이후에도 관할 변동은 계속되어 1972년 12월 9일, 유천동본당이 설립되어 그곳으로 편입되었고, 1979년 9월 10일, 유천동본당에서 가수원본당이 분리·설립되자 또 한 차례 옮겨졌다.

장바탕이공소 주변의 거듭되는 관할변경은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경계 지역에 살며 신앙생활 하는 교우들이 겪어온 십자가였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본당에 정을 붙이기 어려웠고, 빈번히 변경되는 관할 본당의 끝자락에 위치해 주변부에서 맴돌았다. 게다가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구이동이 거듭되어 기존 교우들마저 떠나가자 장바탕이, 원정, 서평공소는 역사 속에 이름만 남게 되었다.

10. 무동공소(1909)

- 주소: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 설립:1909년
- 별칭:무덕이공소(무테기공소)

옛 은진군 구자곡면에 속해 있던 무동공소는 1909년에 설립되었으며 화산(나바위)본당 관할이었다. 『한국 지명 총람』에 의하면, 무동은 돌무더기가 있어 ‘무테기’라 불렸다고 한다. 화산(나바위)본당 베르모렐 신부가 작성한 기록에는 무덕이, 혹은 무테기로 나온다.

1909~1910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무동공소의 교우는 58명이었다. 이듬해에도 52명에 이를 정도로 작지 않은 공소였으나 1921년 논산본당으로 이관될 때에는

19명으로 감소한 상태였다. 무동공소가 위치한 무동리는 1963년 연무읍에 통합되었고, 지금은 연무본당 관할이다.

11. 벌곡공소(1918)⁴⁹

- 주소:논산시 벌곡면 양산리
- 설립:1918년
- 별칭:한삼내공소, 양산공소

조선 시대에 연산현(連山縣)에 속해 있던 벌곡에는 일찍부터 교우들이 거주하였다. 1790년대 후반 원 베드로라는 교우가 벌곡면 어곡리 ‘의실’로 이사하여 웅기를 구우며 살았다. 1866년 발생한 병인박해 때는 벌곡면 덕곡리 ‘상사바위’의 김윤지, 김영오 아우구스티노, 김 베드로가 체포되어 순교하였고, 같은 덕곡리의 ‘중보실’에 살던 정 안드레아, 김 토마스가 순교한 기록이 있다. 1878년 들어 벌곡면 검천리 ‘배티’의 성 베드로, 박 알렉시오가 순교하였고, 벌곡면 조동리의 ‘오리울’에서는 장정선이 체포되어 순교하였다.

벌곡은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어 박해를 피한 교우들이 숨어드는 곳이었다. 박해가 끝난 후 벌곡에 공소가 설립된 계기는 공주 국실(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태생의 한 교우로부터이다. 1867년 국실에 사는 김동상(金東相, 38세) 마태오가 공주 포졸에게 잡혀 순교하였다. 체포될 때 그의 3살 난 아들 김팔용은 옆집 개구멍을 통해 밀어 넣어져 목숨을 건졌다. 옆집 노인 부부가 김팔용을 거두어 길러주며 서당에 보냈는데, 서당 훈장이 ‘너희 부모가 천주교 신자였다’라고 알려주었다 한다.

김팔용은 7살 때 노인 양부모마저 잃었는데 그가 천주학쟁이의 씨라 하여 아무도 거두어주지 않았다. 그는 논산과 연산 등지를 떠돌며 구걸하다가 한삼내(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나 그 집에서 잔심부름하며 컸다. 10여 년을 더부살이한 끝에 김팔용은 그 노인이 준 새경을 받아 독립하여 소금장사로 재산을 모았다. 그때부터 그는 천주교 신자들을 수소문하여 찾은 끝에 되재성당에서 서양인 신부를 만났다. 그 신부는 김팔용이 순교자의 아들이니 이미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

축하고 조건부 세례를 주며 ‘요한⁵⁰’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

김팔용 요한이 가족과 친지, 동네 사람들에게 전교하여 별곡에 30여 명의 교우가 생겨났다. 별곡 교우들은 처음에는 연산 거북리⁵¹ 공소, 이어서 진잠 장바탕이공소에 편입되었다. 1918년경 별곡면 양산리에 지금의 공소가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한삼내공소’라 불렸고, 한때는 ‘양산공소’로 불리다가 ‘별곡공소’로 바뀌었다. 별곡공소는 본래 되재본당 관할이었으나 1921년 논산본당이 설립되자 논산으로 이관되었다.

별곡공소는 김팔용의 아들 김일성 안드레아(1890~1970)가 초대 회장을 맡아 30년 넘게 봉사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전교구청에 있던 라리보 주교의 침구류와 몇몇 피난집이 별곡공소로 보내져 보관된 바 있다. 인민군들이 별곡을 점령하자 교우들이 모이던 ‘공소집’은 ‘양산 인민위원회’ 사무실이 되었다. 그 공소집은 김팔용 요한이 살던 집이었는데 얼마 후 미군들이 별곡을 수복할 때 불태워졌다. 공소집에 있는 라리보 주교의 짐들이 인민군들이 쓰던 물건으로 오인되어 함께 소각된 것이다.

1954년부터 김일성 안드레아의 아들 김희창 요셉(1988년 당시 홍성본당 총회장)이 제2대 공소회장이 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본당과 공소를 중심으로 구호물자가 분배되자 별곡에 교우가 늘어났고, 1956년에 새 강당을 신축하였다. 그때 교우가 150여 명에 이르러 대덕리에 공소를 분리해줄 정도였으나, 구호물자가 끊기자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79년 김희창 회장이 고향을 떠나고, 그 아들 김종현 바오로가 임시로 회장을 맡다가 1984년 정식 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속에서 활력을 잃어가는 공소를 다시 부흥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동안 진잠본당, 즉 후일의 가수원본당⁵²이 설립되자 별곡공소는 가수원본당 관할 공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구조적 문제를 가져왔다. 거리상으로는 가수원이 가깝지만 대전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 논산본당에 가는 편이 나왔다. 그러다 보니 공소 강당에 나오기보다는 집에서 혼자 공소예절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1999년 1월 26일, 계룡본당이 설립되자 별곡공소는 한 때 계룡본당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가수원본당의 공소로 환원되었다. 경계지역에 위치한 조건 때문에 여기저기로 이관되던 별곡공소는 이농 현상과 고령화로 교우가 더욱 줄자 공소가 아닌 구역으로 조정되었다. 2000년 6월 그동안 회장 명의로 되어 있던 별곡공소 부지를 대전



교구 명의로 등재하였다. 2005년에 이르러 공소 강당을 수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과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었다.

12. 신기공소(1921년 이전)

- 주소: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 설립:1921년 이전
- 별칭:부인공소, 제밭(지밭)공소

신기공소의 설립연도는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1921년 논산본당에 편입되었을 때 교우 수가 39명이었다. 인근 연산면 임리에 거북리 공소가 있었는데, 한 때 별곡 교우들이 거북리로 판공성사를 보러 다닌 적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북리와 부인리 교우들이 합쳐져 신기공소가 된 듯하다. 신기공소는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부인 혹은 더 작은 소지명인 제밭(지밭) 공소라고도 불렸다.

13. 사라진 공소들

논산지역에는 위에서 언급하지 못한 여러 공소들이 잠깐 등장하다가 다른 공소에 편입되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랜 박해를 겪은 교우들의 후손들은 가난이 대물림되었고, 정착하여 살만한 마땅한 땅이 없어 이동이 잦았으므로 공소들의 설립과 폐지도 그만큼 빈번하였다.

1887~1888년 통계표에만 등장하는 새물공소(충남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⁵³는 교우수가 65명이었다. 작지 않은 공소였으나 이후 더 이상의 기록이 없다. 공주시 탄천면 남산리에 있던 가지매공소 역시 그러하다. 1888~1889년 통계표에만 나오는데 교우수가 45명이었다.⁵⁴ 그리고 1893~1894년 통계표에만 나오는 종두목⁵⁵ 공소(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두월리)의 교우 수는 7명이었다.⁵⁶

논산본당이 설립된 후 작성된 1922~1923년 통계표에 등장하는 계정공소는 그해의 교우 수가 45명이었다. 아마도 연산면 사포리의 '개정'으로 추정된다. 사포리 지역은 옛 외성면의 개정리(蓋井里)와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⁵⁷ 계정공소는 연산에 있는 다른 공소로 편입되었거나 공소 명칭이 바뀌어 후대로 전해졌을 듯하다.